

사순 제1주일

제1독서: 창세 9,8-15

제2독서: 베드로 3,18-22

복 음: 마르 1,12-15

순정이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마르 1,15)

강
론

회개와 변화



이상섭 신부 / 평화동천주교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제는 “사람은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하며 우리의 머리에 재를 엮었다. 이것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먼지로 돌아가 버릴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지금 갖고 있는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력, 건강한 육체와 아름다움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허무하기에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말에 죽었다는 것을 “돌아가셨다”고 한다. 죽음은 우리를 다시 한 줌의 흠으로 돌아가게 할 뿐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바꾸고 복음을 사는 노력을 해야 한다.

1. 회개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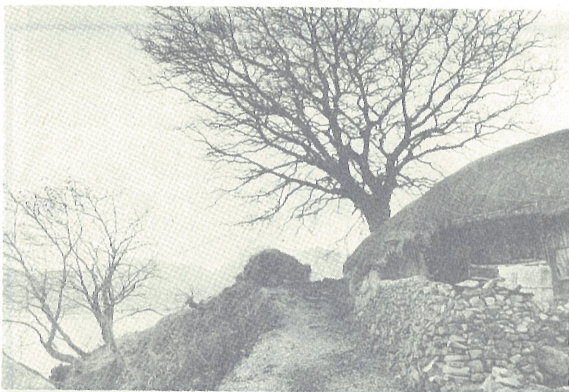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한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친구가, 이웃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먼저 자신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으스스대는 교만한 마음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권위를 가졌고,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체의 직책과 권위는 봉사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자만하라고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스승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신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이 바뀌도록 노력 해야겠다.

2. 복음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인 이기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내 것”과 “우리 것”의 이기주의에서 탈피할 때, “나” 자신이나 “내 가족”만을 위한 생각에서 벗어나 날 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변화된 자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다가가 자신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보잘 것 없고 미천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 사순시기는 한줌의 흠으로 돌아갈 보잘 것 없는 허무한 존재인 내가 복음을 생활화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하겠다.



여 명

세월이 약이겠지요

박대길(벨라도)

□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금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몇 년전 감옥을 탈출한 탈옥수들이 인질극을 벌이다가 붙잡히면서 한 말 중의 하나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이다. 이 말은 ‘돈이 있으면 죄를 저질러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된다’는 뜻이다. 시사하는 바는 당시의 사회분위기, 즉 가진 자들의 삶과 없는 자들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그 후 정확히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 지나친 생각인가.

연말연초부터 시작된 안기부법과 노동법 파문은 우리를 분노케 했다. 뒤이어 터진 한보사태는 우리를 당혹케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다. 가진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법적인 장치를 통해 보장받기 위해서 날치기라는 편법을 이용해 합법화를 가창하려 한 것이 안기부법과 노동법이다. 모리배나 다름없는 기업인과 정치 권력 그리고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금융기관이 사적인 금고로 전락한데서 나온 사생아가 한보사태이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분노케 하는 두가지 사건은 모두 가진 자들에 의한, 가진 자들을 위한, 가진 자들의 것이다.

□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 고장 출신의 가수가 부른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유행가가 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끝내는 그 사람을 잊어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시간에 의탁해서 풀고 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괴로움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지나 온 일을 모두 다 기억할 수 없다. 온갖 희비를 다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곧 죽고 말 것이다. 그러기에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하고 싶은 것은 머리에 혹은 기록으로 남겨두고 뒤돌아 보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것만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

기를 원한다.

이른바 ‘문민정부’가 출범한 초기에는 개혁의 회오리가 정국을 강타했다. 국민의 지지는 거의 절대적으로 높아갔다.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고 싶다는 대통령의 바람이 실현되는 듯 싶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용두사미(籠頭蛇尾)의 실체를 드러내고 말았다. 창피한 일이지만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실형을 선고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도 국민의 저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

한편에는 대형사고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손실 또한 엄청났다. 또한 치솟는 물가와 외채 그리고 오락가락한 남북 문제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곤두박질쳤다. 국민의 반감이 거셀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런데도 ‘착각은 자유’여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현 정권은 ‘문민정부’가 아닌 ‘군민정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현 정권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고, 또 그러한 행태를 보여준 때문이라고 하겠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발생한 모든 대형 사고는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잊혀지고 말 것인가. 여느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안기부법과 노동법, 그리고 한보사태마저.

숲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만남

흙과 물

정인섭(안드레아) / 평화동 천주교회

흙에 뿌리내리는 풀과 나무들
 흙에서 나온 것 먹고 사는 사람들
 흙에서 왔으니 거기 돌아가자고
 흙 속을 기는 벌레들도
 흙먼지 뒤집어 씹으며 우우 바람이 분다

물로 못 씻을 게 있나?
 물로도 못 씻을 것 많고도 씻지!
 물 마시며 해엄치는 물고기처럼
 물 위로 떠 다니는 조각배처럼
 물 밑에 가라앉는 저 쓰레기처럼

흙과 함께 사람이 태어나고
 물과 같이 사람은 살아가고
 흙과 함께 사람이 아프고
 물과 같이 사람은 늙어가고
 흙과 물과 사람의 죽음이 손내미는데

물 한 방울 속에 비쳐 아롱거리는
 물 없는 우리에게 목마른 내일
 물 한 그릇 속에 비쳐 어른거리는
 물 썩는 우리에게 아아 오늘
 물 쥐고 흙 쥐고 가자 우리 빈 몸

특집

이디시 40남주

교구설정 60주년 정신운동에 따른

1. 교구장 사목교서는 교구설정 60주년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1997년은 우리 <교구설정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천년 대회의 직접 준비를 위한 마지막 3년중 첫해이기도 한 올해에, 우리 교구가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토록 뜻있는 계기를 맞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를 모시고 있는 우리 교구는 참으로 축복받은 땅입니다. 우리는 선조들께서 이룩하신 이 자랑스런 역사를 돌아보며, 그분들의 부끄럽지 않은 후예로서 더욱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교구설정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순교자들의 열을 우리의 삶에 구현하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취지에서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1,5)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교구설정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은 “새롭게 하소서”를 정신 운동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우선 신앙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기 위한 한 방법으로, 성당에 들어오면 먼저 5분간 성체조배를 하고 나서 일을 보거나 회합을 하도록 권장한다. 순교로써 신앙을 증명한 우리 신앙 선조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이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순교자들의 후예로서 우리 신앙은 어떠한지 반성하며 지금부터라도 모든 일에

앞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우리 교구 순교자들이 하루 빨리 시복시성의 영광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 <교구설정 60주년 기도문>은 신앙 선조들의 시복시성과 함께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모두 새롭게 되도록 간구하고 있다. 우리 모두 끊임없이, 미사 전후나 각종 모임시 <교구설정 60주년 기도문>을 바치도록 하자.

3. “매일 성서를 읽고 실천합시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스도 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만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은 매일 성서를 읽고 실천하는 것이다. 교구설정 60주년 기념 정신운동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펼쳐는 일 또한 성서 읽기이다. 우리 교구 공동체가 얼마만큼 성서를 봉독했는가를



K랜드 눈 썰매장

- 순수와 꿈의 나라
- 주간(오전10시~오후4시)
- 야간(오후5시~오후9시)

윤 병 순(요 셉)
김 혜 경(레지나)

금구↔원평 중간 목우촌 앞
☎ (0658) 42 - 0365

(주)청풍,공기청정기

세계 최초 국제발명품 대회 환경부문 7회 연속금상 수상 • 담배연기, 냄새, 세균, 곰팡이균 등 오염물질 완전분해, 쾌적한 생활공간 • 무소음, 무휠터, 음이온(-) 산소발생 공기청정기

조 홍 기(이빨리나리스)
이 현 자(세시리아)

☎ (0652) 251 - 0222

015팔달통신·017

전북이동통신 팔달 대리점
신세기통신 팔달 대리점

오 현 중(스테파노)
유 미 숙(마르 타)

전주 오거리 국민은행 옆
☎ 84 - 0015~6

김희민 정형외과

뼈, 관절, 척추, 신경
최신물리치료기 도입, 입원실

김 희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사순절 기도지향과 애덕실천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종합하여 신앙대회 때 우리의 정성으로 봉헌할 예정이다. 우리 모두 <성서통독 운동>에 정성껏 참여하자.

4. 그러면 이제부터 <사순절 신앙쇄신표>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여러분들은 이미 본당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사순절 기도지향과 애덕실천>에 관한 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한다.

먼저 이 표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온 가족이 함께 같은 지향으로 기도하고 애덕을 실천하시기 바란다.

먼저 기도 지향을 보면, 요일별로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순절 매주일에는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즉 사순 제1주일부터의 기도 지향을 보면, 교구의 발전을 위하여, 교구의 신학생들을 위하여, 성전 신축중인 본당을 위하여, 교구 사회복지 사업을 위하여, 공소 신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본당의 모든 예비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주일 미사때에 신자들이 교구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각본당에서는 미사 전에 기도 지향을 공지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

각 요일별 기도 지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지향은 미사 지향으로 되어 있지만 신자들의 일상기도 안에서 같은 지향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월요일에는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망 사제, 은퇴 사제, 해외에서 사목하시는 사제, 유학중인 사제들을 기억한다.

화요일에는 평신도들을 위하여 각자의 처지에서 부르심에 성실히 응답하도록 기도한다.

수요일에는 우리 신앙 선조들의 시복시성을 위하여 기도한다.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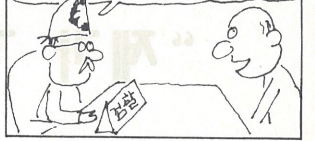
금요일에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한다.

토요일에는 가정 성화를 위하여 기도한다. 가정의 성화 없이 교회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사순절 기도 운동에 열심히 동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노력하자.

요십이 (1225) 김병오

정회장이 자백한대로 권씨는 1억5천을 받았대하나



홍씨는 1원도 안받았대하니 돈을 안준것 아니요?



겸사님도 참 순진하셔서... 야당에도 돈을 주었는데...



힘있는 여당에게 내가 돈을 안준것 같소? 쫓쫓



직 원 초 보

- 1.과목: 양호교사(임시), 과학실 교교
- 2.자격: ①이력서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③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④호적등본 ⑤자격증 사본(양호) ⑥컴퓨터 자격증사본(과학교교) ⑦세례증명서(양호)
- 3.제출기한 및 제출처: 2월25일까지, 전주 성심여자중학교 서무과(☎84-3244)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97년 2월에는 수녀원 개인별 방문
- 장소: 부산 부곡동 수녀원
- 내용: 개인 면담
- 문의: ☎(051)514-1773

(주)이삭온돌침대「파워스톤」

수맥방지 및 치료용 건강돌침대 (공업진흥청 전자파실험필,EMI) 전남북총판

박찬운(베드로),임신재(데레사)

☎ (0652) 251-9836~7
호출기 015-675-9824
휴대폰 011-651-7124

프란치스코 수도회 겨울 성소피정

- 일시: 2월22일~23일(일반)
2월24일~26일(고등부)
2월27일~3월1일(중등부)
- 장소: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집결: 교육회관 오후 2시
- 준비물: 세면도구, 목구, 참가비-2만원
- 신청 및 문의: (02)762-1639, 753-4690

푸른광고기획

·친구교회 행사 기념품·개업, 회갑, 모임 기념품·각종 행사 사은품·각종 양식 및 봉투 인쇄·청첩장, 명함 등·상패, 명패

정영평(라우렌시오)
서영란(마 리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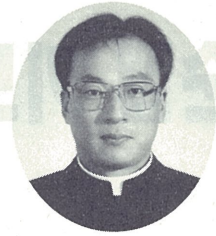
☎ (0652) 225-8147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이상의 미혼여성
- 일시: 2월23일(일) 오후2시
- 장소: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삼랑진 본원
- 문의: ☎(0527)52-4241, 53-3537
- 준비물: 친구약 성서

사목 단상

“제가 가진 것 몽땅 냈거든요!”



양경배 신부/함열 천주교회

사제가 된 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본당에 살면서 부수는 것은 하되, 짓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다. 원래 무엇을 짓고 수리하는 것에 대해 관심도, 재주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95년 9월 부임받은 이곳은 하느님의 섭리(?)와 전임신부님의 배려(?)에 힘입어 교육관 공사라는 크나큰 일이 시작된 본당이였다. 완전히 코가 꺾 채 사목회와 추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총 6억원의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바보같은 나에게서는 행운이 따랐다. 든든한 사목회와 건축추진위원회가 나의 무능함을 잘 매꾸어 주었다. 아울러 신자들의 정성된 봉헌이 한 푼 두 푼 모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할머니들은 단풍놀이, 물놀이 다 포기하였다. 성당에 있는 모과를 따서 모과차도 만들어 팔고, 구역별로 돌아가며 인부식사를 준비하여 식사비를 벌고, 각 가정에서는 반찬을 가져와 부식비를 절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난한 시골 ‘함열읍’에 있는 우리 본당은 아무리 노력해도 공사비중 2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은 도저히 마련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사목회에서는 ‘주유권’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본론은 여기서 부터다.

주유권 판매를 위한 본격적인 판촉활동이 시작되었다. 나는 신자들에게 “여러분이 주유권을 구입하면 500원이 남는데 이 돈은 바로 벽돌 2장을 교육관에 봉헌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어느 주일 새벽미사 후 복사를 마친 4학년 석구가 “신부님, 저도 벽돌 3장 봉헌할게요”하면서 동전 ‘750원’

을 내밀었다. 순간 눈물이 팡 돌았다. 석구의 양볼을 내 손으로 감싸 주었다. 헌데 더 기막힌 것은 사무실에 간 석구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다가 한 쪽에 숨어있던 1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더 발견하여 그것까지도 낸 것이었다. 그런데 다음 주일 새벽미사도 복사를 한 석구는 다시 한 번 나를 울렸다. “신부님, 제가 지난 주일날 850원을 냈는데요. 제가 가진 것 몽땅 냈거든요. 근디요 오늘은 제가 더 많이 가져 왔어요. 며칠 전에 이모부님이 용돈하라고 만원을 주셨는데 그 돈도 벽돌 값으로 낼 거예요!”하며 싱긋 웃었다.

참말로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모르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어른 미사때도 아동미사 때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몇 주일이 흘렀다. 초등학교 태건이, 민혁이, 성택이, 선희가 돼지 저금통을 신축기금으로 봉헌하였다.

나는 그 아이들 때문에 공사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앞이 캄캄하였고, 신경성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골치 아픈 교육관 공사로만 생각했는데, 그 꼬맹이들 덕분에 나도, 어른들도 새로운 각오로 재 무장되고, 무엇보다 하느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함을 더욱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도움주실 분■

국민은행 : 506 - 21 - 0408 - 426

제일은행 : 708 - 20 - 060386

전북은행 : 609 - 22 - 0029066

예금주 : 양 경 배

(유)국민렌트카

각종 차량 대여(보유대수 124대)
· 본사영업부 : 242 - 7200~1
· 군산영업소 : 467 - 6578
· 정읍영업소 : 536 - 3200~1
· 김제영업소 : 45 - 3232~3
익산, 남원영업소 모집중
상담전화 242 - 4442
대표이사 : 박요안(요한)

영창피아노 전주 총 전시장 A/S 전문점

- 18개월 무이자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 신자분 특별우대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구 서중로타리 동서증권 맞은편
☎ 252-0103~4

헤레나 화장품

김정권, 방 헤레나

효자점(효자주공3단지 앞)

☎ 223-2630

인후점(거성프라자 1층)

☎ 242-3671

두산점(두산프라자 1층)

임혜연 웨딩샵

드레스, 예복 대여전문점

메이크업, 신부화장

임 혜 연(엘리사벳)

전풍백화점 앞 에스프리 2층

☎ 85 - 5041

교구소식

❖사무장, 사무원 연수

·때 : 2월 17일 ~ 19일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성서교실 개강

·익산 : 2월 17일(월)

오전 9시30분 미사

·군산 : 2월 18일(화)

오전 9시30분 미사

·전주 : 2월 20일(목)

오전 9시30분 미사

❖레지오 단원 교육

·때 : 2월 17일(월)

·장소 : 쌍교동 성당

❖남성 56차 꾸르실료

·때 : 2월 20일 ~ 23일

·장소 : 가톨릭센터

❖M.B.W 수련회

·때 : 2월 24일 ~ 26일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주제 : 복음화

❖사회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때 : 2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가톨릭센터

❖T.E.C 피정

·때 : 2월 22일 ~ 24일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복학생 피정

·때 : 2월 16일 ~ 23일

·장소 : 천호, 예수회 영성사목연수원

❖M.E 제3차 쇄신주말

·때 : 3월 8일(토) ~ 9일(일)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자격 : M.E주말 경험한지 3년이 상된 부부

·신청 : ☎ 86 - 3993, 85 - 5319

❖교사학교

·때 : 2월 18일 ~ 21일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해성학교 이사회

·때 : 2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교구청

■ 권해 드립니다 ■

기도하고 싶은 그대에게

이안 프티/장숙경

바오로딸/3,500원

기도를 통해 삶 안에서 더욱 친근한 하느님과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책. 각 장마다 구체적이고 감동적인 체험과 예화로 이야기를 이끌어 내면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일상 안에서 마음을 하느님께로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준다.

신앙유산 답사기

이충우/7,800원

도서출판 사람과 사람

‘발로 쓴 한국 천주교회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저자가 천주교와 관련된 역사의 현장을 일일이 찾아 보고 한국사에 녹아 있는 가톨릭의 역사적 뿌리와 그 문화적 토양을 재조명 하고 있다.

풍부한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신앙인들의 삶과 고뇌, 죽음으로 지킨 믿음의 열이 오늘 이 시대에 주는 의미를 밝히므로 지금까지 보아왔던 성지 안내서와 구분된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겨울철 열에너지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가정에서 소비하는 열에너지는 약 40%가 난방용으로 사용됩니다. 가정의 난방으로 1년에 약 3억 5000만톤의 탄소가 대기중에 배출됩니다. 이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무려 10억톤이 넘게 되며 지구온난화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난방시설을 효율적으로 가동시키지 못 할때 헛되어 낭비되는 열에너지의 양은 35~50%나 됩니다.

겨울철의 실내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적당하며 너무 높은 온도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춥고 바람부는 날에 촛불이 흔들리는지를 살펴 바람새는 구멍을 찾아 열이 새는 곳을 막아 낭비되는 열에너지를 잡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합시다.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 2월23일 오후 2시
- 장소 : 광주 수도원 · 대상 : 교교생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남성
- 문의 : (062)510-3031, (02)387-8427
성소상담 언제나 가능

민속떡집

맞춤떡·패션백문

이 종 술(미 카 엘)

박 양 레(미카엘라)

전주교 옆 남부시장 입구

☎ 84 - 4427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미츠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수시 모집
국비생 모집·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 - 2495, 855 - 8653

L G 에 어 콘

- 신제품 특별할인 예약중!
- 설치는 지금, 대금은 5월부터

원 승 연(도밍고)

백제로 병상경기장 맞은편

☎ 241 - 2000, 227 - 0902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이혜경(글라라)

북전주 전화국↔법원 중간

☎ 253 - 3232, 254 - 2631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 75 - 0550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사순절은 회개와 기도와 사랑의 실천시기입니다.

1. 모임 안내 : ① 올트레아-교중미사 후
② 제대회-16일(수) 전 10시
③ 신협정기총회-22일(토) 전 11시
④ 전례부, 편집부-23일(주일) 교중미사 후
2. 성전기금 마련현금 : 오늘 미사중에 2차현금 있음
3. 사무실 휴무 : 17일(월)~19일(수), 사무장(월) 연수회 있음
4. 가정방문 : 19일(수)-장미구역, 20일(목)-쌍용구역 1반
21일(금)-쌍용구역 2반
5. 꾸르실로 교육참가 : 심성택(요셉), 이병로(아브라함)
김희주(스테파노), 김학덕(보나베투라)
6. 사순절 실천사항 : 14가지 열심히 노력 바람
7. 십자가의 길 : 매주 화~금요일 미사 30분전부터 있음
8. 사순절 성가연습 : 매주 월, 수, 금요일 후 8시에 있음
9. 고백성사 : 미사 20분 전부터 언제나 볼 수 있음
10. 초등부 주일학교 : 매주 토요일 3시교리, 4시 미사 있음
11. 금주 전례 : 해설-이점열, 독서-이상열(베드로) 부부
예물봉헌-김학식(요한) 가정
12. 차주 전례 : 해설-김태경, 독서-노원호(요한바나나) 부부
예물봉헌-김진하(보나베투라) 가정

□ 지난해 봉헌금 : 1,361,560원 □ 교무금 : 988,4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춘 웅

- ◎ 교구에서 발행한 사순절 애덕실천표 "새롭게 하소서"에 따라 기도, 회생, 성서통독을 통하여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냅니다.
※ 금요일에는 금육을 실천합니다.
- ◎ 오늘 : 교무금 납부일 ※ 지난해 밀린 교무금을 정리해 주시고 금년 교무금을 신납바랍니다.

1. 금주 모임 : 꾸리아-공식미사 후, 지하성당
2. 주간 모임 : 자모회-20일(목) 전 10시, 유아실
3. 차주 모임 : 애령회, 방주회-공식미사 후, 4회의실
4. 십자가의 길 : 주일-공식미사 30분 전, 금요일 미사 후
5. 사무장 연수 : 17일(월)~19일(수), 천호 피정의 집
6. 교리교사 학교 : 18일(화)~21일(수), 나바위 피정의 집
7. T.E.C 피정 : 22일(토)~24일(월), 나바위 피정의 집
8. 레지오 마리아에 단원교육 : 24일(월) 후 7시, 중앙성당
9. 초등부 전례단 피정 : 25일(월) 전 9시, 본당에서
10. 부활절 성가연습 : 매주 금요일 후 8시, 많은 참석바람
11. 사순절 저금통 : 각 가정에 배부된 돼지 저금통을 살찌웁시다.
12. 전입가정 환영 : 최봉철(요셉) T.254-5289, 12구역 3반
강기문(마태오) T.75-9142, 동아A 112/1201
이현일(테오발드) T.225-5276, 성원A 105/1102
이철순(나자르) T.252-3865, 동아A 111/704
13. 독서 : 금주(새벽) ① 유성용 ② 임명희, 차주-① 박수홍 ② 서금자
(공식) ① 이철수 ② 정성호, 차주-① 정재호 ② 정정순
14. 미사 안내 : 금주-사랑하를 모후Pr., 차주-매괴의 모후Pr.

□ 지난해 봉헌금 : 1,486,450원 □ 교무금 : 2,853,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 주님,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이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사랑과 진리요이다.
- ◎ 새 성전 신축위한 묵주기도 봉헌 : 소계-5,192단, 누계-315,386단

1. 모임 : ① 본당 M.E 나눔모임-20일(목) 저녁미사 후
② 꾸리아-23일(일) 공식미사 후
③ 요셉회-23일(일) 공식미사 후
④ 사라화-23일(일) 공식미사 후
2. 유아 세례 : 오늘 공식미사 후
3. 신임교사 학교 : 18일(화)~21일(금), 나바위 피정의 집
강은아(엘리사벳), 이선화(로사)
※ 많은 기도와 격려 바람
4. 사무실 휴무 : 17일(월)~19일(수)-사무장 연수, 천호 피정의 집
5. 십자가의 길 :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미사 30분전
6. 중·고등부 동계 성지순례 : 24일(월) 부모님들의 협조바람
7. 금주 전례 : 해설-정희수, 독서-① 이종근 ② 김형진
8. 차주 전례 : 해설-박연식, 독서-① 오상준 ② 안영이
9. 청소년 : 5구역 2, 3반
10. 설날봉헌금 : 284,300원

□ 지난해 봉헌금 : 912,600원 □ 교무금 : 850,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주님,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이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사랑과 진리요이다.

1. 금주 모임 : ① 예비자 입교식(1차)-낮미사 중
② 상지원 봉사-낮미사 후
2. 사무장-원 연수 : 17일(월)~19일(수), 천호 피정의 집
3. 교사학교 : 18일(화)~21일(금), 나바위 피정의 집
4. M.B.W 우리시대의 영성 : 19일(수)~21일(금), 본당-낮과정
※ 많은 참여 바람(사무실 접수)
5. 구역미사 : 21일(금)-새한그린
6. 주일학교 신입생 환영회 : 22일(토) 후 3시
7. 차주 모임 : 대건회, 성모회-낮미사 후
8. M.B.W 새 본당상 : 24일(월)~26일(수), 천호 피정의 집
9.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 25일(화)~27일(목)
10. 성서교실 : 26일(수) 후 8시
11. 구역미사 : 28일(금)-중산
12. 신축현금 신입현황 : ① 261세대-5억5천6백3십3만원
13. 폐품 수습현황 : 928,020원
14. 주일학교 안내 : ① 초등부-매주 토요일(교리-후 3시, 미사-후 4시)
② 중·고등부-매주 토요일(교리-후 4시 30분, 미사-5시 30분)
15. 청소년 봉사 : 22일(토)-자비의 모후Pr.
16. 금주 전례 : 새벽-유희정, 낮-정준성, 저녁-김영중
17. 차주 전례 : 새벽-곽순숙, 낮-최준성, 저녁-정인자

□ 지난해 봉헌금 : 766,400원 □ 교무금 : 478,000원

효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F A X 223-3821 수 녀 원 223-3822 사목회장 이 병 선
보좌신부 223-3823 보좌신부 권 완 성

◎ 우리 본당에 부임해 오신 권완성(사도요한) 보좌신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환영식-오늘 10시 30분미사 후

1. 금일 구역 형제 처사(웃놀이) 대회 : 후 2시부터
2. 금주 모임 : ① 요셉회 안나화-금일 9시미사 후 ② 자모회-18일(화) 전 11시 ③ 교리교사(교사학교)-18일~21일, 나바위 피정의 집 ④ 사회복지분과회-19일(수) 전 10시 ⑤ 청소년 분과회-21일(금) 후 8시 ⑥ 예수살렘회-22일(토) 전 10시 ⑦ 꼬미시움-22일(토) 후 3시
3. 사무장 사무원 연수 : 17일~19일, 천호 피정의 집
4. 금주 모임 : ① 구역형제회-23일(일) 후 3시 ② 올트레아-23일(일) 후 8시 ③ 전례해설단-25일(화) 후 8시 ④ 꾸리아-26일(수) 전 10시 ⑤ 사목회-28일(금) 후 8시 ⑥ 성모가사회-3월 1일(토) 전 10시
5. 유아 세례 : 23일(일) 후 5시(사무실 접수요망)
6. 남성 제56차 꾸르실로 교육 : 20일~23일, 천호 피정의 집
오동형(바오로), 박완순(미카엘) ※ 많은 기도 바람
7. 중·고등 피정 : 23일~24일-새돌 수련원(회비10,000원)
8. 전입 환영 : 이호선(알로이시오), 삼천 주공214-306 T.223-7749
남일순(가말라) 삼천 주공214-105 T.224-5909
9. 성소후원을 위한 돼지(저금통)를 살찌웁시다.
10. 본당 발전현금 봉헌자 : 황수석(프란치스코)-1집만, 이석배(빈첸시오) 이집만, 이분기(마카엘) 일백만, 한태중(빈첸시오) 이집만
※ 감사합니다.
11. 다음주 차(茶)봉사와 미사 안내 : 삼익 A구역

□ 지난해 봉헌금 : 1,650,350원 □ 교무금 : 1,813,500원

효지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F A X 226-1044 수 녀 원 223-0715 사목회장 김 규 완
보좌신부 강 호

◎ 축! 강 호(가브리엘) 보좌신부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 ※ 환영식-공식미사 중
- ◎ 성전 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소계-5,315원, 누계-643,957단

1. 금주 모임 : 구역장, 제대회-21일(금) 10시미사 후
2. 봉성체 : 21일(금)-사무실에 신청
3. 성령세미나 : 17일(월)~22일(토)-매일 후 7시 30분~10시
4. 사순절 특별강론 : 23일(일) 공식미사 중, 강사-이인복 교수
5. 신축현금 봉헌자 : 김중훈-2만, 송우섭-1십, 김인수-1십
황경숙-1십 5만, 이종욱-2백, 양복임-8십, 이병기-1십, 이분순-1십
김이화-2십, 허영하-2백, 강춘자-1십, 최옥련-1십, 이준수-4만
유주리-1십, 지복례-2십, 서순주-7십, 유옥림-1십, 박종남-5십
최홍자-5만 ※ 소계-8백3십6만원, 누계-9억4천3백2십7만원
6. 폐품 수습 : 소계-35,550원, 누계-5,684,090원
7. 차주 모임 : 올트레아, 사목회, 요셉회, 승리의 여왕Cu,
성전신축 2차현금 실시
8. 금주 전례 : 해설-김낙환, 독서-① 박성곤 ② 최완생
봉헌 안내-황근용, 이후동 부부
9. 차주 전례 : 해설-이인숙, 독서-① 나귀준 ② 박해숙
봉헌 안내-유영호, 문춘희 부부

□ 지난해 봉헌금 : 1,906,570원 □ 교무금 : 2,985,000원